

## 광주세계수영대회 '저 비용 고효율' 새 역사



**'평화의 물결 속으로' 슬로건 17일 대장정 끝**  
FINA 주최 역대 선수권대회 사상 최대 규모  
자원봉사·서포터즈로 곳곳서 성공개최 견인  
대회 중반 '클럽 붕괴사고'로 선수 부상 오점

'평화의 물결 속으로(Dive into Peace)'를 슬로건으로 내건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17일 간의 열전을 마치고 28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대회를 치르면서 저예산의 운영난 공백을 시민들의 자원봉사로 메웠다는 점에서 시민의식이 빛난 대회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대회 운영 미숙,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클럽 붕괴사고' 등은 대회 성공개최의 걸림돌이 됐다.

◇수영선수권대회 최대 규모 새 역사

이번 대회는 194개국에서 7500여 명(선수 2537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국제수영연맹(FINA)이 주관하는 대회 가운데 역대 최대 출전국, 최대 출전선수 신기록을 세웠다.

2020년 도쿄 올림픽 출전권의 43%가 배정돼 역대 그 어느 대회보다 명승부가 펼쳐졌다.

드래켄, 레데기, 쉐양 등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치열한 승부를 겨루 박진감이 넘쳤고 신인들의 돌풍 또한 거셴다.

기록도 풍년이었다. 평영 100m에서 영국의 아담 피티가 자신이 갖고 있던 종전기록을 0.22초 앞당긴 56초88로 세계신기록을 갱신했다. 남자 200m 접영에서는 19세의 크리스토프 밀라크(헝가리)가 10년 동안 깨지지 않던 '수영황제' 펠프스의 기록을 0.78초나 앞당기면서 역시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다.

우리나라도 여자 400m 계영에서

3분42초58로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또 남자 자유형 50m 예선에서 양재훈(21·강원도청)이 22초26의 한국 신기록을 달성했고, 남자 계영 800m 예선에서도 7분15초05로 한국신기록을 갱신했다.

대회 초반 여자 다이빙 1m 스프링보드에서 김수지가 동메달을 획득한 이후 '노 메달'에 그치면서 세계 수영강국들의 높은 벽을 실감해야 했다.

◇광주 시민의식 빛난 자원 봉사·서포터즈

이번 대회의 주역은 1만500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시민서포터즈라는 데 이력이 없다.

공식 자원봉사는 8개 분야 2793명이다. 분야별로는 ▲통역 954명 ▲수송 672명 ▲일반 524명 ▲경기 보조 377명 ▲의료 128명 ▲의전 72명 ▲시상 55명 ▲미디어·보도지원 11명 등이다. 이들은 대회 기간 하루 8시간씩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하루 일당 1만8000원을 받고 17일간 경기장에서 또 광주시내 곳곳에서 손님 맞이할 한 광주시민들의 열정이 없었다면 이번 대회는 개최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행사진행, 수송, 통역, 주차안내, 관광도우미, 의전, 청소 등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데가 없었다. 단순한 업무 같지만 크고 작은 일들을 수행하면서 민간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1만2000여 명의 시민서포터즈 활약도 눈부시다. 대회 초반 시민서포터즈가 아니었다면 경기장 관측석은 그야말로 썰렁한 분위기로 흥행에

비상이 걸릴 상황이었다. 시민서포터즈는 각국의 선수단을 응원하며 경기장 분위기를 살리는 감초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일부 자원봉사자들의 잦은 이석이나 운영 매뉴얼 미숙지, 사진 취재 지원 미숙 등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저비용·고효율 대회 '외형보다 실속'

이번 대회의 총사업비는 2278억원으로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5.24%, 인천아시아게임 대비 11%에 불과할 정도로 저예산이다.

국비 예산지원이 적어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저비용·고효율 대회를 추구하면서 기존 시설물을 재활용해 사후 관리비용 부담을 줄였다.

주경기장인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의 관람석만 일부 확대했을 뿐 모든 경기장 시설을 재활용하거나 가섵했다.

수구와 아티스틱스영, 하이다이빙 경기장 가설에 사용했던 자재와 시설들은 대회가 끝난 후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재활용한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사용했던 휴지통과 출입 차단벨트, CCTV, 카드, 침대시트 등 불용품을 재활용해 7억 5000여 만원 상당의 예산을 절약했다.

대회 전체 예산의 30%로 모든 경기장 시설을 완비해 사후 관리비용 부담을 줄인 점도 경제적인 대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태풍·폭염 악재 이겨냈으나 대회중반 '대형 악재'



대회 중반 제5호 태풍 '다마스(DANAS)'가 북상하면서 조직위원회가 바짝 긴장했으나 다행히 서해안 인근에서 조기 소멸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태풍과 장마가 겹치면서 우려했던 폭염도 한풀 꺾여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 단 장맛비가 주말과 휴일에 지속되면서 외국 선수단과 관광객들에

게 선보일 예정이었던 문화행사에 차질이 빚어진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하지만 대회 폐막을 하루 앞둔 27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에서 복층식 철골 구조물 붕괴사고로 내국인 2명이 숨지고 외국 선수 8명 등 16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해 오점을 남겼다.

서은홍 기자

### 경찰, 광주 클럽 붕괴 사고 수사 속도 낸다

2019 광주세계수영대회 기간 중 광주 모 클럽에서 구조물이 붕괴돼 사상자 27명이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광주경찰청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클럽 업주 A(51)씨 등 관계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 등은 지난 27일 오전 2시44분께 클럽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불 소홀히 해 2명을 숨지게 하고 2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소방당국·관할구청과 별도 합동 감식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 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고 당시 클럽 안팎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한편, A 씨 등을 상대로 부실시공 또는 안전상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특히 ▲건축물 안전 관리·건축법 준수 의무 ▲조례상 안전 규정(1m당 1명 입장 제한, 100m당 안전 요원 1명 배치 등) 준수 여부 ▲비상 대피 조치 적절성 등을 두루 살펴본다.

사고 경위·안전 위반 집중 조사  
공무원 상대관리·점검도 확인

아울러 클럽 내 허용 복층 면적인 108㎡보다 77㎡가 무단 증축된 점을 확인, 서구청 건축과·위생과 등 공무원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 중이다.

경찰은 공무원들을 상대로 인·허가 과정 상 문제와 관리·감독 기관의 점검 적절성 등을 확인한다.

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영업 중인 해당 클럽이 지난 2016년 7월 제정된 자치구 조례에 따라 출·허용 지정업소로 지정된 점에 특혜는 없었는지 여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명사고인 만큼 사고 경위 규명에 집중한다. 인·허가 과정 상 문제와 '출·허용 지정' 조례의 위반 여부도 수사대상이다"면서 "특별수사팀을 꾸린 만큼 수사 속도 늘릴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고로 2명이 병원 치료도중 숨지고, 25명이 크고작은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 중 11명은 입원 치료 중이며, 14명은 치료를 받고 돌아갔다. 부상자 가운데 8명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선수다.

신봉우 기자

## 한빛원전 4호기 공극 관련 지역주민들께 드리는 사과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이번 한빛원전 4호기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 조사과정에서 최대 깊이가 157cm로 확인된 공극으로 인해 지역주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번에 발견된 한빛원전 4호기 공극은 건설 당시 콘크리트 다짐 불량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유 여부를 떠나, 건설 당시에 철저한 시공감독과 감리의 부족으로 이런 문제를 발생케 한 점에 대해서 원전 운영사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그 동안 민관합동조사단과 함께 원전 격납건물 내부철관(CLP) 및 콘크리트 공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했고, 모든 조사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해 왔습니다. 앞으로, 한수원은 콘크리트 공극에 대한 철저한 추가조사, 구조물 건전성평가 및 완벽한 정비를 통해 원전 안전성을 확보하여 지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 발생으로 원전의 안전 운영에 대한 많은 심려와 불안감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7월 26일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및 임직원 일동